

현장 발표와 언론보도를 통해 살펴 본 보건복지부의 급성심정지 조사결과와 대한심폐소생협회의 역할

(관련보도매체: 연합뉴스, MD저널, 의협신문, 소방방재신문)

김 호 중 홍보위원회 간사, 순천향의대 응급의학과

2013년 6월 19일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소방방재청이 주관하는 '급성 심정지조사 심포지움'이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에서 개최되었다. 2011~2012년에 119구급차를 이용해 응급실을 내원한 2만 7823명의 급성심장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발표로 주목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각 연자의 발표와 언론의 보도, 그리고 심폐소생협회 임원의 의견 등을 종합해서 정리하고자 하였다.

연자의 발표와 언론의 공통된 주 관심사는 심정지 조사 결과 자체에 대한 것이었다. 특히, 지역간 소생률의 비교 등이 강조되었는데 우리나라의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퇴원율이 3.3%(2010년)에서 4.4%(2012년)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역간의 생존퇴원율 차이는 최대 6.2배까지 크게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기준으로 서울의 급성심장정지 생존퇴원율은 8.7%를 기록해 1.4%를 보인 경북과 6.2배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 생존퇴원율 현황]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0	3.3	6.3	3.5	2.4	4.0	4.0	8.2	4.4	3.3	4.1	1.5	0.6	2.1	1.2	1.1	1.1	2.6
2011	4.0	7.8	4.5	3.7	5.8	4.1	6.6	3.3	4.0	3.1	3.0	2.4	3.1	1.7	1.6	1.6	3.5
2012	4.4	8.7	4.4	4.7	5.3	2.9	6.5	3.6	4.8	3.6	2.5	2.7	2.8	1.6	1.4	2.1	4.6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응급의료기금 지원을 통해 지역간 격차는 줄고 있는 추세이고 생존퇴원율 2% 미만지역(시군구)의 비중이 2010년 51.2%에서 2012년 37.5%로 감소한 지표를 근거로 들었다.

심폐소생술 실시율의 경우 일반인이 실시한 심폐소생술은 2010년 3.2%에서 2011년 4.8%, 2012년 6.5%로 2010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즉각적인 심폐소생술 실시여부가 생존율 증가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급대의 자동제세동기 사용률은 32.7%(2010년)에서 63.1%(2011년), 73.7%(2012년)로 증가했다.

남성이 여성보다 급성심장정지 발생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성비가 남자 64.2%, 여자 35.7%로 조사됐다.

급성심장정지 발생장소로는 전체 발생환자의 52.9%를 차지한 가정이 꼽혔다. 심장질환과 같은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는 8.9%에 그쳤다. 조사자의 16.2%가 당뇨병을, 24.6%가 고혈압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심장정지 발생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0년 급성심장정지 발생건수는 2만 5909건이었던 것이 2012년에는 2만 7,823건으로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급성심장정지 발생건수는 2010년 44.8명에서 2012년 45.6명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부의 관련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과 대책으로는 조사의 결과는 고무적이지만 미국 등 선진국의 생존퇴원율 9.6%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이를 위해서 심폐소생술교육을 확대하고 구급차와 소방차가 동시에 출동하는 '펄블런스시스템'의 구축과 119 구급대의 시행률 및 이송시간 단축, 그리고 구급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의견으로 마무리되었다.

2부에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자들의 발표가 진행되었고 협회 교육위원인 조규종 교수의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동영상 상영회에서는 최송현 전 아나운서를 모델로 진행된 동영상발표가 있었고 BLS위원장 송근경 교수의 생존사슬에서 국민의 역할이란 주제의 발표에서 일반인의 생존사슬 기능의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과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조하였다. 또한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협회 교육위원장 이중의 교수의 발표는 계속 증가될 심폐소생환자에 대해 시행되는 술기는 양적 측면과 동시에 질적인 관리와 교육이 필요함과 상황실의 심정지에 대한 인지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언론을 통해 협회 홍보위원장 노태호교수의 보건복지부의 결과에 대한 정리와 건의사항을 발표하였다. 건의사항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대대적인 공익캠페인을 벌여 온 국민이 급성심정지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하고 대처 방안으로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여 누구나 제대로 된 심폐소생술을 익히도록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만 명에 못 미치지만 안전벨트 캠페인이 활발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비한다면 급성심장사는 2만 8천명에 달할 정도로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걸맞는 공익캠페인이 벌어진 적이 없습니다.)
- 2) 학교교육과정에서 심폐소생술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도입해야 합니다. (미국에는 심장협회에서 모든 고등학교학생이 재학시 심폐소생술을 익히도록 권유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 3) 다중이용시설의 근무자는 자동제세동기(AED)를 포함하여 심폐소생술을 익숙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4) 현재 확산중인 자동제세동기(AED)의 보급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하고 유사시에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일반에게 알려야 합니다.
- 5) 어린이와 청소년의 급성심정지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 마련도 급합니다. (우리의 경우 2009년 14세 미만의 급성심정지 희생자가 694명에 달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운동을 시작하는 청소년에서 급성심정지를 예방하기 위한 12, 13종의 사전체크 항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6)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선의와 달리 나중에 희생자의 가족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는 책임 등 문제제기에 대한 법률적 면책이 보장되어 있음을 홍보해야 합니다.
- 7) 이미 동일한 목적으로 국민에게 심폐소생술을 교육, 보급하고 있는 여러 신뢰할 수 있는 전문 민간기관을 지원하여 효과를 증대할 것을 기대합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심포지움을 통해 현재까지 대한심폐소생협회의 심폐소생술 보급에 대한 많은 노력이 결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이에 대한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 그리고 협회의 체계적이고 학술적인 보고와 개발이 더해질 경우 향후 조사결과와 방향은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항상 배워요! CPR교실 QUIZ 정답 : ④ 제세동이 결정된 후 속 주기전입니다.